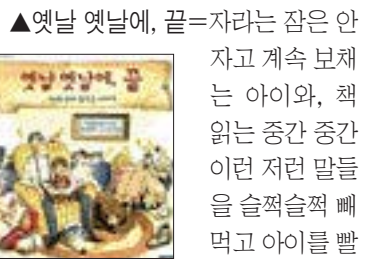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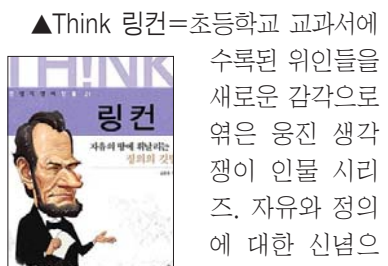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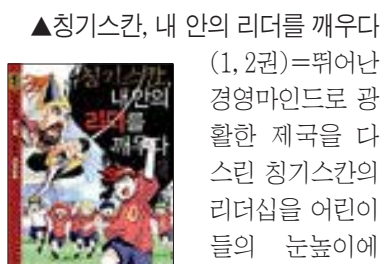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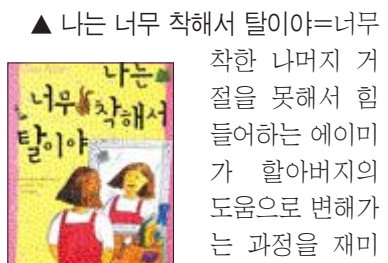
▲옛날 옛날에, 끝=자라는 잠은 안 자고 계속 보채는 아이와, 책 읽는 중간 중간 이런 저런 말들을 슬쩍슬쩍 빼먹고 아이를 빨리 재우려는 아빠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잠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읽어주기에 좋은 책이다. <셀리언 어린이·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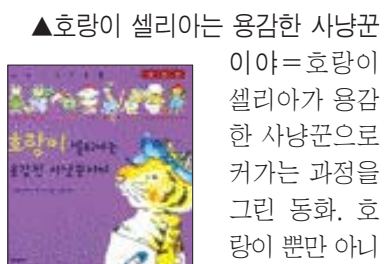
▲Think 링컨=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위인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엮은 웅진 생각이 읽는 인물 시리즈. 자유와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공헌을 한 링컨의 일대기를 다뤘다. <셀리언 하우스·8천900원>



▲칭기스칸, 내 안의 리더를 깨우다 (1, 2권)=뛰어난 경영마인드로 광활한 제국을 다스린 칭기스칸의 리더십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책.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칭기스칸의 일화를 들어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주니어·각권 8천800원>



▲나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너무 착한 나머지 거절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예미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재미있는 동화로 그렸고 있다. 싫은 일을 거절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화낼까봐 고민하는 예미에게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어린이 작가정신·7천500원>



▲호랑이 셸리아는 용감한 사냥꾼 이야=호랑이 셸리아가 용감한 사냥꾼으로 커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 호랑이 뿐만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다섯수레·9천원>

# 종이 공예품에 얽힌 선인들의 애환

## 이야기가 있는 종이 박물관 김경지음



1965년 경북 안동의 양반집에 들렀던 40대 중반의 한 중년 여성은 안방에 앉잔히 놓여 있는 종이로 만든 요강을 접했다. 꽃가마 타고 시집 갈 때 쓰라며 집안 어른이 손녀딸의 가마 안에 넣어 준 것으로 6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골동품이었다.

종이를 끈 끈적임 만들어서 동글게 꼬아 오려가며 양중맞게 빚은 요강에 중년 여성은 완전히 꽃혔다. 수차례 안동을 방문하며 결국 요강을 손에 넣은 그녀는 이후 '종이 세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종이 연구가 김경지가 쓴 '이야기가 있는 종이 박물관'은 그가 40여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구한 종이 골동품 130여점 가운데 50여점을 가려 뽑고 각각의 작품에 얽힌 옛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추억을 풀어낸 '이야기 박물관'이기도 하다.

인사동 일대에서 '종이 골동품을 찾는 괴상한 여인'으로 소문났던 저자는 항상 손가방에 가벼운 흙이불 한장과 세면도구, 뺨뺨한 지폐 20만원을 넣은 흰 봉투를 넣고 다녔다. 종이 작품이 있

다는 말을 들으면 지체 없이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디에 종이 공예품이 있다는 소문이 뜨면 물불을 안 가리고 쫓아가는 열성 덕에 저자는 홀로 늙어가는 제주도 해녀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종이 신발을 구할 수 있었고, 체통 지키는 양반들이 늘 도포 자락에 넣고 다녔던 종이 세숫대야도 만날 수 있었다.

또 종이접기를 통해 지혜를 가르치는 물건이라고 해서 이름 붙은 지혜지(知慧紙) 갓을 넣어 두는 갓 상자, 안경집, 종이 우산, 여여쁜 규수의 아름다운 핸드백 등도 접할 수 있었다.

양반들이 쓰는 종이 우산을 손에 쥐어주던 안동의 노할머니가 당부했던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상하지 않고 잘 보관해 주고,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말은 그녀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종이 작품을 찾아 다니며 많은 '인연'도 만들었다.

책에서는 충남 예산으로 '서산'(書算·선비들이 하나의 책을 끝날 때마다 표시해 두기 위해 사용하던 길고 납작한 종이 판넬)을 구하려 함으로써 떠났던 '흔들'의 작가 최명희가 미국 강연에 나선다는 말을 듣고 한지에 닥섬유를 입혀 포도물을 들고 블라우스를 만들어줬던 사연, 첫 전시회를 열었던 공간 사랑의 감동현에 얽힌 사연 등 다양한 예술인도 만날 수 있다.

또 종이 바람을 주신 금산사의 성혜스님, 가문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종이 가방을 내어주던 초라한 판자집의 노인 등도 등장한다.

초창기 '수집'에만 열중했던 저자는 점차 '종이' 자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틈틈이 한지 공부를 해 신라 최고의 종이로 알려진 '잠견지'와 '옥춘지'를 복원하고 '한매재'라는 종이연구회도 설립했다. 또 일본 동경, 베를린, 파리 등에서 수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책에 실린 사진작가 김중만의 아름답고 섬세한 사진이 글과 잘 어우러진다. 저자는 현재 제주도 환경면 저지리의 예술인마을로 삶터를 옮기고 작품을 전시할 갤러리를 짓고 있다.

<김영사·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방



세숫대야



요강

## 150가지 '머피의 법칙'과 해결책

### 왜 버스는... 리처드 로빈슨 지음

버스정류장에서 그렇게 안 오던 버스로 답답함을 붙이면 금방 나타나고, 하필 씻지도 않은 채로 외출했을 때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게 된다. 아니길 바라지만 어김없이 들어맞는, 잔인한 '머피의 법칙'이다.

'왜 버스는 세 대씩 몰려다니까?'의 저자인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로빈슨은 머피의 법칙에도 과학적·심리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원리를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떠오른다.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차고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세 대씩 몰려다니는 것은 첫 번째 버스가 많은 승객들을 태우느라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 두 번째, 세 번째 정거장에서도 상황이 반복되면서 뒷차와 만나게 된다. 저자는 두 번째 차량을 선택하면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감각, 착시, 기억력, 연상, 감정, 여론 등을 주제로 한 150가지 머피의 법칙과 그 해결책을 담았다.



<한겨레출판·1만1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뇌의 비밀 과학적으로 풀다

### 1.4kg의 수수께끼 새년 모페트 지음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사람의 마음은 뇌의 작용에 불과한 건지, 기억은 뇌의 어디에 존재하는지, 사물을 보는 것은 무슨 작용 때문인지 등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의대생의 끈질긴 호기심이 이같은 질문에 답을 준다. '1.4kg의 수수께끼'는 스탠포드대학 의대생이던 새년 모페트가 해부학 실습 시간에 뇌를 해부하면서 때로, 뇌의 모든 것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두개골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되는 수술실, 의식의 암호를 깨는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실, 꿈과 각성 상태의 삶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실 등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뇌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이뤄지는 현장의 분위기를 인물과 사건 등과 함께 머뭇 수월하게 읽힌다.



<거름·1만5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내 인생 한 권의 책

### 이정명 '바람의 화원'

실제라 생각하고 쫓아왔던 사물이 막상 허상임을 알고는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혼란스러운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또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정명의 '바람의 화원'(밀린 하우스)을 들춰본다. "마음만 빈 화폭 위를 서성인다. 흰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얼굴이 떠오른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4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으나 수많은 시간 속에서 바위처럼 굳어져있는 틀을 깬다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 만족해야 하는가? 음악과 함께 만난 사람들, 어찌보면 많은 사람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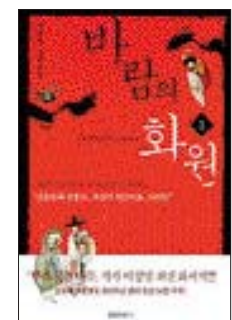
그들 대부분의 얼굴이 지금 내 눈 앞에 없다. 마음 한구석에서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들의 움직임과 이야기 소리, 얼굴 표정이 스친다.

그 속에서 벗겨진 내 모습을 본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내일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다만 내가 앉아있을 때 어울리기를 바라면서 힘을 다해왔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나의 작은 힘에 의하여 주위에 퍼지기를 기대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을까? 사랑했을 수도 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내세웠을지라도.

음악이 무엇인가? 음악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속에

## 예인의 삶·가치



서 그들을 그리워하게 한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맴돌고 있는 음악과 함께 그들의 얼굴이 함께함이 그 연유이다.

문화신포니에타 단장으로서 치러낸 모닝 콘서트, 심야음악회, 시행되지 못한 2년간의 연주회, 누가 선(線)을 만들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선을 왜 부단스러워하는가?

"어둠이 짙어왔다. 김조년은 촛불에 일렁이는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흔들리는 그림자는 촛불일 뿐 자신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바위처럼 굳어 앉은 것이 자신의 실체였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어는 것 하나 온전히 가지지 못한 미혹한 늑대인가 자신이었다."

김홍도와 신원복은 경쟁자이면서도 예인을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삶의 과정을 보면서, 존재가치가 없는 천박한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 모두를 희생시키려 전성까지도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갈등하게 한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전혀 필요 없는 자는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선과 악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기다린다고 빨리 가지 않으며,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이 시간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과가 보여질 뿐이다.

다시 한 번 느껴본다.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젊음에 더해지는 축복임."

음악으로 영혼을 맑게 씻고, 기쁨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음악가가 아닐까?

'작두위에 올라선 무당은 자신의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그 작두날에 발바닥이 베일 것임'

한 사내가 왔다가 돌아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사내가 돌아간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병열  
<문화신포니에타 단장>



Advertisement for Astrix (아스트릭스)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box and text: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 The ad includes a testimonial from a doctor and a list of symptoms like chest pain and dizziness.